‘전남 서남권 벨트’ 민주 vs 非민주 격돌

민주 추미애 당대표 이례적 서부권 지원 나서

비민주 후보들 ‘찻잔속 태풍’ 이냐 ‘돌풍이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고공행진 속에 전남 ‘서남권 벨트’가 야권 및 무소속 이른바 ‘비민주’ 후보들의 선전이 관측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은 지금은 당이 갈라졌지만, 과거 옛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표밭을 갈아 온 야권 및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당보다 인물·조직 대결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전남지역정가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이 탄탄한 지역조직을 구축한 ‘서남권 벨트’가 최대 격전지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화당은 목포가 지역구이며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의원의 조직력 등 저력에다, 목포 출신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와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연대해 서남권 벨트에서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찻잔속 태풍’이 될지, 거대한 ‘돌풍’이 될지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과거에 정당보다는 조직과 인물론 등으로 승부가 갈렸던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여권 후보에 맞선 비민주 후보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목포시장 선거는 평화당 박홍률 현 시장에 맞서 민주당 김종식 전 완도군수가 격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바람과 현직 프리미엄, 평화당 박지원 의원 조직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두 후보가 목포가 아닌 진도와 완도 출신인데다 지역사회의 양대축인 목포고와 문태고의 대결인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도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동진 현 군수와 3선 도의원 출신인 평화당 장일 후보가 대결하고 있다.

이 군수는 현역 프리미엄의 장점이 있지만, 재선 과정에서 반대편측에 있는 세력들도 있어 ‘마의 3선’ 고지에 오를지 관심이다. 진도 출신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장 후보에게도 바람을 일으켜 줄지 주목된다.

현직이 중도하차해 전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해남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이길운 전 해남군의회 의장과 평화당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겨루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군수의 잇단 낙마로 인해 도덕성과 안정성을 가진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 바람보다는 인물론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천잡음으로 인해 22개 시군 중 민주당내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분류되는 신안군수 선거전도 예측불허다.

신안 선거전은 판이 복잡해졌다. 민주당 천경배 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평화당 역시 고길호 현 군수가 경선에 불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연선 전 전남도의원이 평화당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박우량 전 군수 역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서 무소속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다자구도속 신안 군수 선거전은 막판 무소속 후보간 연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추 대표가 지난 19일 전남 서부권을 방문한 것도 취약한 신안의 천 후보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천 후보의 표에 영향을 미칠 무안·신안·영암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인 서삼석 후보에게 이날 추 대표가 서둘러 공천장을 건넨 것도 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전략공천과정에서 천 후보가 추 대표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특정후보 밀어주기 논란이 증폭됐다.

이와 함께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승옥 전 여수부시장과 평화당 곽영체 전 도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력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강진원 현 군수 조직의 향배가 승부를 가를 변수다.

장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윤시석 전 전남도의원과 무소속 유두석 현 군수가 대결하고 있다.

이 지역은 민주당 바람이냐,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무소속 조직력이냐가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은 사실상 무소속 3선을 노리는 유 현 군수가 인물론에서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 윤 전 도의원이 당의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장성은 재·보선을 포함한 과거 7차례 선거에서 4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승리했다.

이밖에 고흥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영민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평화당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맞붙었다. 조직력과 인물론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격돌하고 있다.

지방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 서남권벨트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당보다는 조직이나 인물론 등으로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 독식이냐, 비민주후보가 교두보를 마련해 여당을 견제할 것인가가 관전포인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용기에서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참석한 안철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박원순, 야권 김문수–안철수 단일화 견제 “정치·정략적으로 표 못 얻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으로 생각해서 표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야권 후보 단일화는) 그쪽 사정이니 제가 알수는 없다. 제가 시민들 마음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전략을 질문 받고 “현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나 시민 맘을 잘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좋은 정책으로 담아가는 과정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김 후보와 안 후보를 앞서고 있어 역전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南 기자단 방북 무산 ‘유감’…풍계리 폐기 주목”

통일부는 22일 “북측이 5월23일과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기자단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 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측 취재단의 방북이 무산된 직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남북간 모든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그럼에도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정부도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순천 대통합에 앞장 설 것”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순천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최근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고 내려온 허석 예비후보는 분열과 반목 걷어내고 단결과 화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흠집 내기와 각종 중상모략,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일체 대응하지 말 것을 캠프에 주문했다”며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순천시민이 승자가 되는 선거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상대였던 조충훈 시장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청년회의소(JC)에 관해서도 “청년 경제인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JC에서 추진하는 사회봉사 활동은 희망의 빛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으로 인해 제 생각과 다른 언사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앞으로 순천시장이 된다면 모두 함께 순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천이 분열과 반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허석 예비후보는 “어른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순천시장이 되면 역대 시장을 포함해 지역의 각계각층 원로를 모시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무소속 단일화에 대해 “모두가 소중한 순천의 자산”이라면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축제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쳤다.

순천=김승호 기자